

# 김영록 지사, 새해 첫 날 한국에너지공대 건설현장 점검

김영록 전남지사가 임인년 새해 첫 날인 3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건설현장을 방문, 추진상황을 살폈다.

이날 김지사는 공사 관계자로부터 공사 진행 추진 상황 등을 듣고, 특히 혹한기와 해빙기 건설 현장의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관리와 코로나19 지역 전파 방지를 위한 현장방역 철저 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설립을 추진 중

캠퍼스 건설·교수 채용·학생 선발 등 현황 살펴  
을 3월 개교...“세계 톱10 공대 성장 지원 최선”

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으로서 글로벌 톱10 공과대학을 목표로 지난 5월 착공해 올해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신입생이 사용할

5,000㎡ 규모의 개교핵심시설 공정은 현재 약 85%에 달하고, 대학원생이 입시 연구소 등으로 사용할 임대교사 에너지신기술연구소는 지난해 10월 준공했다.



교수는 현재 42명을 채용했다. 개교까지 50명, 2025년 편제 완성 시까지 100명의 교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입학할 신입생은 수시모집

100명이 모두 총원 상대고, 현재 정시 정원 10명을 모집하기 위해 원서 접수 중이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폭발적인 관심으로 수시모집 경쟁률이 24대1로 신생 대학입에도 대학 사이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입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분석한 정시 지원 가능 점수도 국내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써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캠퍼

스 건설, 교수 채용, 학생 모집 등 3월 개교를 위한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3월이던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이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개교한다”면서 “쉽지 않은 일이었고, 고난도 많았지만 200만 도민이 힘을 합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며, 앞으로 세계 톱10 공과대학으로 성장하도록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 시, 초교 입학 자녀 둔 중기 근로자 지원금

광주시가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오전 10시 출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장려금 제도’가 실시된다.

자녀의 입학 적응 기간(3~7월)에 중소기업 학부모 근로자가 오전 10시에 출근하는 데 따른 해당 사업장의 인건비 손실분을 지원한다.

오전 10시 출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오후 5시 퇴근을 허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 및 사업장 근로자이며, 기간제 근로자 대체인력, 조손가정, 맞벌이 부모, 한 부모 가정도 지원이 가능하다.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은 제외된다.

100명에게 1개월에 33만 원씩 2개월간 66만 원을 지원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초등 1학년 입학기는 직장인 엄마의 일·가정 양립 고충이 극대

화되는 시기로 퇴사를 가장 많이 고민하고 실제로 많이 퇴사하는 시기”라며 “사업주는 인사·노무 관리가 용이하고 1학년 학부모 근로자는 임금 삭감 없이 돌봄 고충을 잠시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중소기업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삭감되는 연차보상비(최대 30만원)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오선우 기자

## “귀여 청년어선임대사업 신청하세요”

도, 시범대상 어선 7척 확보

전남도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연안어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도입한 ‘청년어선임대사업’의 전국 시범대상 어선 10척 중 7척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청년어선임대사업은 기존 어업인의 연

안 허가 어선에 대해 2년간 임대계약약을 해 청년어업인이 사용하면, 어선 임차료의 50%(월 최대 250만 원) 및 어구구입비와 어선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만 49세 이하로 소형선박 조종면허 또는 6급해기사(항해)면허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년어업인으로 선정되면 어선 직무·안전교육, 우수어업인 멘토링, 어업 컨설팅도 지원받는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연안복합·자망·통발어업 허가어선 소유자와 청년어업인은 오는 28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어업인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 설명회를 12일 목포수산물유통센터와 완도어선연합회, 13일 고흥수협과 여수시청에서 각각 개최한다.

/김용현 기자

## 광주 기초의회 인력·조직 확충한다

의원정수 비례 정책지원관 채용...사무국 재편

광주 기초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안 전면 시행에 따라 인사권 독립·정책 지원 가능 확대 등을 위한 조직 신설·인력 충원에 나섰다.

3일 광주 5개 자치구 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내용은 ▲의회사무국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 인력 확충 ▲주민참여권 신설 ▲주민 조례 직접 발의 ▲주민감사·소송 청구 연명 하향 ▲의회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방의원 겸직금지 의무 구체화 등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이 중 의회사무국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하게 되며, 정책 지원 인력 확충을 위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 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을 지

방공무원으로 채용토록 했다.

다만,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은 올해부터 2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증원한다. 올해 의원 정수 4분의 1 범위 내, 내년 12월 31일까지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증원된다.

이에 따라 광주 5개 자치구의회의도 조례·운영세칙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을 진행 중이다.

의원 정수가 20명인 북구의회의는 정책 지원 담당을 신설하고, 인사 실무자(6급)와 정책지원관(7급) 5명을 충원한다. 직급별로는 6급 2명, 7급 5명이 충원된다. 현 의회사무국 정원(26명)에서 최소 12명이 늘어나는 셈이다. 인력 충원 논의 추이에 따라선 추가 조직 재편도 검토한다.

의원 정수 19명인 광산구의회의도 ‘정책지원관’을 신설, 올해 팀장(6급)과 정책지원관(7급) 4명, 인사

실무자(7급) 등 6명을 충원한다. 내년엔 정책지원관 4명을 더 뽑음으로써 사무국 정원은 30명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의원 정수 13명인 서구의회의는 올해 정책지원관(7급) 3명을 채용한다. 인사 실무자도 보강하지만 팀 직제에는 변화가 없다.

의원 정수 11명인 남구의회의도 인사 담당자, 정책 지원관을 충원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정원·직급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의원 정수 7명의 동구의회의는 조만간 인사 실무 담당·정책 지원 인력을 1명씩 채용한다. 내년 말까지 정책 지원 인력을 최대 3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광주 한 자치구의회 관계자는 “의회사무국 인사가 지자체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만큼, 독립 대의 기관으로서 의회의 위상과 권한이 높아진다고 본다. 정책 지원 기능이 강화되는 만큼 수준 높은 자치 실현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찬기 기자

“따뜻한 사랑이었던  
당신을 기억합니다...”

하늘로 돌아가시는 길  
외롭지 않도록...  
당신을 닮은 따스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합니다.

호남 유일의 고품격 초대형 전문 장례식장  
청지장례식장  
CHEONJI funeral hall

김호지구 서광주역 옆 100M  
대표전화 (062)527-1000  
장례준비 및 절차에 대해 24시간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립니다.

2022년  
광주발전 앞으로! 민주당이 제대로!  
더불어민주당 광주 기연치 선거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광주 기연치 선거대책위원회가 3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대선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 민주당 시·도당 5·18묘역 참배

“오월 정신 받들어 제4기 민주정부 창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2022년 임인년을 맞아 오월 민주 영령들을 참배, 대선 승리를 다짐하며 새해를 시작했다.

광주시당은 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날 참배 일정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광주 기연치선거대책위원회 선대위원장단이 참석했다.

광주시당은 5·18묘역 참배에 이어 민족

민주열사 묘역을 찾아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하다 산화한 민족민주열사들의 뜻을 기렸다.

송갑석 광주시장 위원장은 “오월의 정신과 열사의 뜻을 받들어 제4기 민주정부를 반드시 창출하겠다”며 “광주는 민주당의 심장인 만큼 광주에서부터 더 겸손한 자세와 면밀한 대안 제시로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선대위도 이날 오전 김승남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선대위원과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5·18 묘지 합동 참배에 나섰다.

이날 전남도당 선대위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시다’는 슬로건으로 대선 승리를 다짐했다.

정의당 광주 선대위도 이날 5·18묘지를 참배했다.

강은미 호남·제주 선대위원장은 “오월정신 계승해 2022년 대선 승리국민께 희망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 민주당 전남도의원, 대선승리 결의대회

“원팀으로 대한민국 대전환 준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전남도의원들이 3일 이재명 후보 대선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지지해 확산에 나섰다.

이날 오후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고

흥·보성·장흥·강진)과 주철현 의원(여수갑), 전남도의회 김한중 의장, 이광일 원내대표, 정경선 운영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도의원 28명, 무소속 김희동, 이혁제, 임용수 전남도의회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성과를 바탕으로 치열했던 경선 과정을 마무리하고 원팀으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준비하겠다”고 지지를 표명했다. 이어 원팀으로 대선 승리, 헌신적인 선거운동, 이재명 후보 정책과 공약 홍보 등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전남도당은 앞서 이날 오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대선 승리를 다짐했다. /정근산 기자